

# 봉화군 고추농산업의 혁신환경과 육성전략

## Revitalizing Red Pepper Agro-Industry in Bonghwa County, Korea

이종호(백상경제연구원, jongholee@beri.re.kr)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는 경상북도 봉화군의 고추 농산업의 혁신환경을 분석하고, 최근 들어 지역산업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클러스터 전략을 토대로 지역 고추농산업의 육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봉화군의 농림업 비중은 48.1%로써 전국평균 13.4%는 물론 경북 평균 30.4%에 비해 서도 월등한 농업중심지역이다. 주요 재배작물은 쌀, 고추, 사과, 배추, 수박, 감자 등이 나, 이 중 고추는 농업소득 측면에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작물이다. 봉화군의 고추생산량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안동, 괴산, 의성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봉화군의 고추재배 농가수는 3,848가구로 전체 농가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대비 3%, 경북대비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봉화 고추농산업의 생산유통체계는 크게 1차생산 → 유통과 1차생산 → 2차가공으로 구분된다. 먼저, 1차생산 → 유통은 군내에서 재배된 고추의 70%가 도매업자를 통해서 판매되며, 재래시장 및 할인매장이 10%, 지역농협 10%, 전자상거래 5%, 기타 직거래장터 및 방문객직접판매가 5%로 나타나 봉화지역 건고추의 유통체계는 여전히 도매업자 중심의 낙후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차생산에서 2차가공업체로 공급되는 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봉화군에서 홍고추 가공상품 제조업체는 4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은 가내공업 형태로 소량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홍고추를 활용한 2차가공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봉화군 고추농산업과 관련된 혁신주체는 개별 농민과 76개 작목반, 27개 농업법인, 지원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어서 지역내 혁신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특히 지역농협은 신용사업이외에 고추관련 경제사업은 없는 실정이며, 지역에 소재한 약초시험장은 고추와 무관한 기관이며, 인근의 영양군에 위치한 고추 시험장 또한 품종연구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개별농가와는 무관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주관하에 환경농업대학을 설립하여 지역내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친환경농업관련 지식커뮤니티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환경농업대학 2기 졸업생 43명중 친환경인증을 받은 22명이 주축이 된 친환경농업연구회의 자발적 결성, 고추 친환경품질인증농가 17명이 참여한 배나들친환경농업협의회 등 지식커뮤니티의 결성과 안동대, 경북대 등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산학연 협력기반 조성을 혁신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